

# 장마철 농작물 피해 최소화 당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 무주군, 배수로 정비·강우 전후 방제 등 농경지·농업시설물 점검 철저

무주군이 장마철을 앞두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법을 내놨다. 무주군에 따르면 벼는 논 주위 배수구를 정비해 농업용수가 원활히 흐르도록 하고,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경우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어 비닐 등으로 피복해 붕괴를 방지해야 한다. 발작물은 필요시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하고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야 한다.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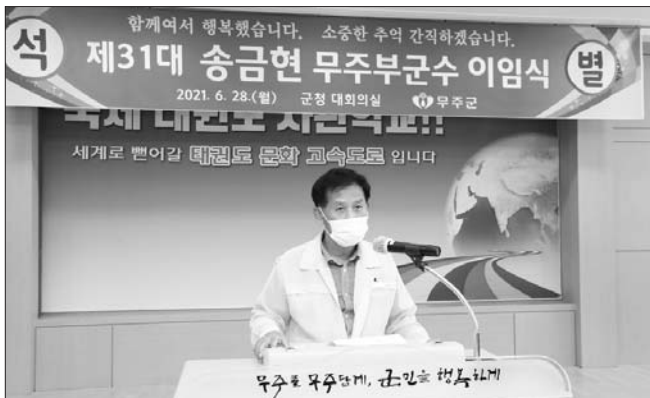
고추와 참깨는 역병, 탄저병 예방을 위해 강우 전후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과수의 경우 외부에서 물이 과원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강풍으로 과실 낙과 및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를 세워 고정해야 한다. 또한 검무늬썩음병, 갈색무늬병 등 병충해 방제가 필요하다. 농기계 보관은 흙이나 먼지 등 오물

과 습기를 제거한 후 기름칠하여 통풍이 잘되고, 비를 맞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줘야 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소독작목팀 이화재 팀장은 “예년보다 장마철이 일찍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농경지와 농업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무주를 응원하겠습니다”

### 송금현 무주부군수 이임

무주군 송금현 부군수가 28일 무주군 부군수로서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 임식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군수와 무주군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송금현 부군수는 “1년을 10년같이 일하겠다는 각오가 결실을 맺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며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은 발로 뛰는 행정이 완성된다는 믿음으로 현장행정에 주력했던 것이 무주발전과 군민행복의 밑거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 송금현 부군수의 이임식이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군수와 무주군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어 “한공무가 보물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북합문화도서관과 군립요양병원 건립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 의지를 모으는데 노력하되 힘을 보탤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또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무주를 응원할 것”이라며 “무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를 극복하고 전 북발전의 동력, 세계 태권도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황인홍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일자리와 기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 직무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무

주에 쏟아주시는 부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 대응의 위기를 함께 넘었고 응답법 방류 피해로 인한 아픔 또한 같이 나는 우리가 관광과 농업, 복지, 경제, 지역개발에 주력하고 무주다운에 깊이를 더한 순간들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군수는 이어 “보내드리는 마음 서운하지만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생각하며 든든하게만 여기겠다”며 “무주를 향한 더 큰 관심, 더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1992년 7급 공채로 임용돼 완주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송금현 무주군 부군수는 공보담당관실과 자치행정과 등 요직을 거쳐 비전 21정책담당관과 전라북도 일자리정책관실 경제정책팀장과 기업지원과장, 사회경제정책과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7월 무주군 부군수로 취임한 후부터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현장행정을 몸소 실천하며 ‘무주다운 무주와 행복한 군민’ 실현에 앞장서는 등 역할을 발휘해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사물주소 시행 적극 홍보 나서

장수군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주소정보체계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장수·장계 시장 상인 및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주소체계의 핵심사항인 입체화된 주소정

보의 사용, 건물이 없는 장소의 사물에 부여하는 사물주소 시행에 대하여 적극 홍보했다. 이번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체계는 고가·지하도로와 같은 지하와 공중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어 입체적인 3차원 주소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버스정류장·졸음쉼터·주차장 등 생활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정확한 위치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상황시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주민의 주소부여 신청권 확보를 위해 자주 이용하지만 이름 없는 길인 숲길, 농로, 샛길 등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직접 도로명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옷 세탁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진안군은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38도 이상 고열 및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군은 최근 본격적인 농번기 시작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로 진드기매개 감염병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고 실내복과 구분해 착용할 것을 당부하며 야외활동 후 즉시 샤워, 옷 세탁 등을 실시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군 보건소는 지난 11일부터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물품인 기피제를 각 마을 이장단을 통해 세대당 2개씩 배부를 시작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물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하지만 야외활동 전에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작



진안군은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업복을 착용하고 배부된 기피제를 뿌린 후 활동 후에는 샤워와 세탁을 한다면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질병이기도 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야외 활동 후 2주 내 고열 등 증상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이 경우 의료진에게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을 알려야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3개 분야 수상

진안군은 전라북도가 주최한 ‘제8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3개 분야에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콘테스트에서는 진안군 동향면 봉곡마을이 최우수상(1위), 진안을 원안정마을이 우수상(2위), 마령면이 우수상(2위)을 수상하는 영광을 받았다.

콘테스트에서 봉곡마을은 ‘교육·문화·복지가 함께하는 마을, 마을공동체가 살아 있는 마을, 과거·현재·미래가 대화하는 마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문화·복지분야에 참여해 최우수상을 수상해 8월 열리는 ‘농식품부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다.

봉곡마을(위원장 이재철)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들을 위한 만화도서관과 방과 후 놀이터를 운영하고, 마을주민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와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기증한 물품을 활용한 마을박물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마을 자체 재단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공동

체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원안정마을(위원장 박명진)은 ‘치유 플랫폼 The 원안정’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가지고 소득·체험분야에 참여하여 수상했다. 주민들이 직접 농가레스토랑과 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소득·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로 빼어난 자연 경관과 농가레스토랑, 마을여행 프로그램 운영 등 꾸준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소득증대 기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마령면은 2020년 ‘마령활력센터’ 준공 후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중심지의 기능 회복과 경제기반 회생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성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진안군 마을(농촌)만들기 정책의 성과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마을(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마을(농촌)만들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 통

#### 전춘성 군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진안1호 나눔리더

전춘성 진안군수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1년 전북을 이끄는 나눔리더에 진안군 1호로 가입했다.

28일 진안군청에서 열린 가입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박용훈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인증패 전달 등이 이뤄졌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되는 ‘2021 전북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리더 캠페인’은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역 내 영향력 있는 분들의 나눔 활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눔리더’는 개인 기부자 가운데 1년 안에 100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인증패 수여와 세계 혜택 등이 주어진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나눔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동참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나눔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동참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나눔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동참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고원물 입점 희망

#### 농가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비대면 소비심리에 대응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통합쇼핑몰 ‘진안고원물’을 구축에 앞서 관내 농가와 업체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진안고원물에 입점을 희망하는 농가 및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안군 농특산물 온라인 통합쇼핑몰 구축 종합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입점 공고에 따라 필수 제출서류와 입점심사 기준, 쇼핑몰 운영 방식 등에 관한 문의가 이어져 입점희망 농가 등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됐다.

설명회는 진안고원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천춘진 박사가 ‘코로나 이후 비대면 유통 트렌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짧은 강의를 진행하고, 진안군 온라인 통합쇼핑몰의 구축과 입점에 관한 종합 안내, 질의응답과 설문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